

증권 다이제스트

ELS 및 DLS 8종 공모
- 8/3(금)까지 모집

KB증권



KB증권

ELS 6종·DLS 2종 등 8종

KB증권은 오는 3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HSCEI·S&P500)으로 최고 연 6.0%(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에이블(able) ELS 619호(3년만기·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6종과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8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617호(2인덱스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와 유로스탁스50(Eurostoxx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리자드 상환 기회가 2번 더!
TRUE 10674회
멀티 리자드형 모집!



한국투자증권

총 30억 멀티 리자드형 ELS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일까지 코스피 200(KOSPI200), 홍콩H(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0674회'를 총 3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5%(6개월), 90%(12·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6%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한 추가 리자드 옵션을 통해 설정 후 6개월과 12개월 조기상환 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이 85%(리자드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과 함께 연 6%를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된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엘리스텝다운+리자드형
동시 추구 DLS 5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엘리스텝다운과 리자드 쿠폰을 동시에 추구하는 D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5종을 3일까지 모집한다.

원유(WTI), 유럽지수(EuroSTOXX 50)를 기초자산으로 엘리스텝다운형과 리자드형을 결합시켜 연 6.42%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DLS 2788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는 기존 스텝다운형에서 3, 4, 5개월 시점에 조기상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엘리스텝다운형이다.

/김문호 기자

외국인, 지배구조개선 기대株에 ‘러브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식화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가치 제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상장사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추가 상승을 제한했던 디스카운트(할인) 요인이 해소되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달 들어 30일까지 외국인은 우리은행(1040억원), 엔씨소프트(921억원), SK텔레콤(491억원) 등 지주사 설립 등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3341억원)와 삼성전기(1366억원)를 대거 순매수했다. 또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NAVER(3249억원) 역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매수금액이 많았던 종목은 LG이노텍(1362억원)이다. LG그룹이 새로운 총수 체제를 확립할 때마다 ‘가업은 장남이 물려 받고, 승계가 시작되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종목	순매수금액(백만)
SK하이닉스	334106
NAVER	324995
삼성전기	136671
LG이노텍	136245
KT&G	111561
우리은행	104081
엔씨소프트	92187
한국가스공사	69161
기아차	65893
현대건설	63352
한국금융지주	52653
SK텔레콤	49163
한국항공우주	47582
삼성물산	43510
현대모비스	40419

기간: 7월1일~30일

선대 형제들은 경영에서 물러난다’는 전통에 따라 LG이노텍이 LG그룹 계열에서 분리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면서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구본준 부회장은 향후 LG이노텍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주식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구 부회장 소유의 LG 지분 7.72%(약 1조 원)를 활용해 LG이노텍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현재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은 포괄적 주식이전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새로 만들어지는 지주회사로 온전히 이전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우리은행 주식을 갖고 있으면 향후 새로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증권과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주식의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 역시 김택진 대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지주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 대표가 11.9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지만 2대 주주인 국민연금(11.27%)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1년 간 최대주주가 5번이나 바뀌는 등 경영권 불안이 투자리스크로 꼽혀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국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처럼 지주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

다. 또 지주사 설립을 통해 인수합병(M&A)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실적관련 컨퍼런스콜에서 지배구조개편 계획을 밝힌 SK텔레콤에도 외국인의 순매수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했지만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계열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중간지주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 기아차(658억원), 현대모비스(404억원) 등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다.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435억원) 역시 외국인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인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개선효과는 지주회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게 되면서 지주회사 기업가치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건설사, 반려동물 위한 특화설계 ‘눈길’

**반려동물 입주자 전용 ‘펫존’ 등
조경·커뮤니티 시설도 맞춤형**

‘호텔, 놀이터, 케어센터...’ 최근 건설사가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설계부터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다양한 주거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 600만 시대, 펫팸족(pet+family), 펫미족(pet+me), 딩펫족(dink+pet)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반려동물을 위해 흔쾌히 지갑을 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아예 반려동물을 위한 차별화된 인테리어는 물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기반의 전용 펫스테이션 서비스도 나올 정도다.

내년 1월 입주하는 ‘의왕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는 반려동물이 맡겨야 외에서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선보인 바 있다. ‘편한세상 송

도’도 반려동물 호텔을 커뮤니티 시설 내부에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리마크빌 영등포(2016년 10월 입주)’는 오피스텔 A동 3~4층 40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 전용 ‘펫존’을 만들었다.

이 처럼 반려동물 보유 가구를 흡수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다른 가구를 분리해 민원도 줄이이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S4-2,3블록의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퀘어’ 단지 내에 반려동물의 운동 및 사육이 가능한 펫케어센터를 조성한다. 이 단지는 ▲2블록 1381실 ▲3블록 1132실 등 2513실이다.

동광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분양 중인 오피스텔 ‘수원호매실 동광뷰엘’ 27~37㎡, 333실 옥상에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한다.

신세계건설은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분양 중인 ‘빌리브 울산’ 아파트 51~84㎡ 405가구, 오피스텔 53~64㎡ 162실에 계열사인 이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폴리스 펫샵의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11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의 ‘일원대우 재건축(가칭)’ 단지에 현재 특허 출원 중인 H-클린현관을 첫 시범 적용한다. H-클린현관은 현관 및 복도 수납장, 세탁실(보조주방), 욕실을 통합해 새로운 현관 기능을 제시하는 상품으로 현관 입구에 콤팩트 세면대가 있어 반려동물 산책 이후 간단한 세척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의식주 및 생활 환경 등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상품들이 등장하는 추세”라며 “건설사도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부터 펫케어센터까지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화건설

재건축 ‘노원 꿈에그린’ 분양

한화건설은 8월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대(상계8단지)에서 재건축하는 ‘노원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노원 꿈에그린은 1062가구 가운데 조합원 829가구, 임대 141가구를 제외한 9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은 ▲59㎡ 17가구 ▲74㎡ 8가구 ▲84㎡ 61가구 ▲114㎡ 6가구다.

지하철 4·7호선 더블역세권으로 마들역, 노원역, 상계역을 도보로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이용 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중심지로의 이동이 쉽다. 단지에서 도보권(1km 이내) 내 15개의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다. 바로 앞에 위치한 상곡초등학교를 비롯해 온곡초·중, 청원초·중·고, 상계초, 노원고 등이 있다.

유해업소가 없는 주변 생활환경도 주목할 만하다. 생활시설로서 남측의 상계백병원, 노원역 인근 롯데백화점 및 노원문화의 거리, 상계중앙시장 등이 있다. /이규성 기자

KRX국민행복재단 “장학생 지원 넘어 자부심까지...”

Advertorial Corner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의 인재육성 사업이 장기적인 장학금 지원에 더해 인성과 자부심을 높여주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장학생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전문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지난 2011년 KRX국민행복재단을 설립했다. KRX는 재단을 통해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노후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재단은 설립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655명의 학생에게 약 2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가



/한국거래소

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선발된 장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생은 2년간, 중·고등학생은 고교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장단계별 워크숍, 인성교육, 합

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은 자아발견과 진로 탐색, 비전 형성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장학생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어 교육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소년원 학생, 미혼모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학업을 중단해 교육사각 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력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합격할 때까지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85%로 평균인 71%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전국 10개소 소년원 전체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